

# 70년 해로하고 한날한시 손잡고 세상 떠난 부부



▲ 사진=한시에 숨을 거둔 딕과 셸리. 유튜브(WBNS 10TV) 캡처

70년을 해로한 부부가 불과 몇 분 차이로 나란히 세상을 떠났다. 이들 부부는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.

오하이오주에서 살고 있던 딕(89)과 셸리(87) 부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결혼 70주년을 맞았다. 슬하에 5명의 자식과 13명의 손주, 그리고 28명의 증손주가 있을 정도로 70년의 결혼 생활은 부부에게 행복 그 자체였다.

이들 부부는 이날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가족들에게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.

으며 그로부터 약 보름 후인 지난 1월 8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. 이후 부부는 병원에 입원에 다른 층으로 분리돼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는 오히려 악화됐고 결국 손을 쓰기 힘든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.

부부의 딸 하퍼는 “병원 측에 부모님이 한 방에 함께 있게 해달라 간청했으며 고맙게도 이를 들어줬다.”면서 “존 덴버의 애창곡이 나오는 병실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잡은 손을 놓지 않았다.”고 말했다.

이별의 순간은 조용히 찾아왔다. 부인 셸리가 먼저 눈을 감았다. 이에 간호사가 남편 딕에게 ‘이제 손을 놓아도 괜찮다. 부인이 기다리고 있다’는 말을 남기자 곧 그 역시 숨을 멈췄다. 이렇게 지난 12일 부부는 70년이라는 행복했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.

딸 하퍼는 “부모님을 동시에 잃은 우리들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부모님은 정말 동화같은 결말을 맺었다.”면서 눈시울을 붉혔다.

숨진 부부는 1월 19일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정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.

# 남편 꿈에 나온 번호로 복권 당첨된 여성

코로나19로 실직한 한 여성이 거액의 복권에 당첨됐다. 특히 이 여성은 20년 전 남편이 꿈에서 본 번호를 기입해 대박을 터뜨리는 행운을 얻었다.

지난 24일 캐나다 CTV News에 따르면 토론토에 살고 있는 덩 프라바투둠(57)씨가 6,000만 캐나다달러(미화 약 4,700만 달러) 복권에 당첨됐다.



▲ 사진=복권 당첨된 프라바투둠, 페이스북(CTV News)

프라바투둠은 “20년 전 남편의 꿈에서 본 번호를 지금까지 사용해왔다.”면서 “복권 당첨이라는 믿기 힘든 행운이 내게도 찾아왔다.”며 기뻐했다.

라오스 출신인 프라바투둠은 1980년 14명의 형제

자매와 함께 캐나다로 이민해 40년 간 노동자로 일해오며 두 명의 자식을 힘겹게 키워왔지만 지난해 봄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일자리를 잃었다. 그에게 일생일대의 행운이 찾아온 것은 지난해 연말이다. 20년 간 매주 구매해 온 온타리오주 복권에 당첨된 것이다.

프라바투둠은 “지난 40년 간 가족을 위해 닦치는 대로 일해왔다.”면서 “이민자로서 대박 복권 당첨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일이었다.”고 밝혔다. 이어 “캐나다로 왔을 때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여행을 한 적이 없다.”면서 “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는 대로 유럽, 하와이 등을 여행하며 세상을 보고 싶다.”고 말했다.

# 남편 불륜 증거 사진 속 여자는?



▲ 사진=멕시코 경찰 자료 사진, shutterstock

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한 여성이 남편에게 흥기를 휘둘렀다.

멕시코 소노라주에 사는 이 여성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남편이 젊은 여성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. 두 사람이 밀회를 즐기는 사진도 있었다.

사진을 본 여성은 남편이 외도했다고 화를 내며 부엌으로 가 흥기를 집어 들어 남편에게 여러 차례 휘둘렀다. 비명을 들은 이웃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아내를 체포해 곧장 경찰서로 연행했다.

그런데 경찰의 조사 결과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밝혀졌다. 남편 휴대전화 속 여성 사진은 다른 아닌 본인의 옛날 사진이었던 것이다.

경찰 관계자는 “체포된 여성은 남편이 바람을 피운 줄 알고 격분해 흥기로 여러 번 남편을 찔렀다. 하지만 피의자가 봤다는 사진은 수년 전 본인이 남편과 찍은 사진으로 드러났다.”고 밝혔다. 또 “사진 속 여성이 너무 어리고, 날씬하고, 예뻐서 과거의 본인이었을 줄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.”는 아내의 해명도 덧붙였다.

남편은 아내가 본 사진은 자신과 아내가 지금보다 젊고 훨씬 더 날씬했을 때 찍은 사진이며, 오래된 사진을 휴대전화 속에 간직하고 싶어 디지털 화했다고 설명했다. 아내가 휘두른 흥기에 다친 남편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, 아내는 법적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.

이번 사건에 대해 한 현지 매체는 “아내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비극”이라고 전했다.

#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[백] 한방·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-Acupuncture, Inc

“27년의 임상경험과 한방/척추의 정확한 진단”으로,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. 침, 부항, 한약/보약, 척추교정, 엑스레이,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p><b>메디케어</b></p> <p>지정병원 승인필요 (서울/세종/대한) 센트럴 헬스 이지 초이스</p> <p>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, Care 1st Humana, Blue cross Blue Shield, Kaiser 일반 메디케어 파트 B</p>	<p><b>각종 보험</b></p> <p>오바마 케어 Health Net, Blue cross Blue Shield, Kaiser Aetna, Cigna United Health Care HMO-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*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</p>	<p><b>교통사고</b></p> <p>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.</p> <p>무료 상담! 전화주세요!</p>	<p><b>진료 내용</b></p> <p>두통, 어깨, 목, 허리, 무릎, 발목, 저림, 오십견, 안면마비, 우울증, 수면장애, 감기, 갱년기 증상 등</p> <p>진료시간: 월~금 9am~6pm 화 1pm~6pm/토 9am~12pm</p> <p>예약/상담 714.530.7001</p> <p>9681 Garden Grove Bl., Suite 101 Garden Grove, CA 92844(모란각 식당 옆)</p>  <p>Dr. 백샤론 한의학,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</p>
---	--	---	--

\*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. (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.)